세계의 당뇨소식

한국

대한당뇨병학회, 10년내 당뇨대란 우려

대한당뇨병학회는 '한국인의 당뇨병 발생현황' 보고서를 통해 우리 나라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0%선으로 최소 300만명에서 최대 500만명 정도가 당뇨병 환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동물성 식품과 지방질 섭취증가와 신체 활동량 감소, 노령인구 증가, 생활양식의 서구화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특히 국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현재 당뇨병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연령대인 40~50세에 이르렀으며, 심장과 신장, 시력 등의 기능저하 같은 완치 불가능한 당뇨합병증이 당뇨병 발병 뒤, 10년 후에 최고조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10년 이후에는 환자와 보호자를 아울러 국민 1,200만명 정도가 당뇨병으로 인한 직·간접적 고통을 받게 되는 '당뇨대란'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또 이 때문에 노동력 상실과 더불어 연간 1조3천억원을 상회하는 당뇨병 관련 의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학회는 우려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이런 당뇨대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라며 '당뇨병 퇴치 10개년 계획'을 마련, 올해부터 대대적인 당뇨병 및 당뇨합병증 예방 캠페인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학회는 전국 규모의 당뇨병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역별로 당뇨병 전문의를 통한 정기 공개강좌를 개최하며, '당뇨버스'를 운행,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당뇨병 검진 및 의료상담을 시행하는 등의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학회 김광원 이사장은 '당뇨병은 환자나 가족, 의료진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도 정부가 직접 나서 체계적인 예방과 치료전략을 수립,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당뇨병, 엄마에서 아이로 전염될 수 있다

소아당뇨라고 불리는 제 1형 당뇨병은 그 과정에서 환자의 인체조직이 스스로의 인슐린 생산세포를 파괴시키는 특성을 보이며, 이 질병은 엄마에게서 아이에게 옮겨질 수 있다고 생쥐를 대상으로 수행된 실험에서 밝혀졌다. 연구결과는 'Nature Medicine'지 최근호에 실렸다.

펜실바니아 의과대학의 알리 나지 교수와 그의 연구팀에 따르면, 의사들이 지금까지 질병의 한 증상으로 생각했었던 파괴적인 항체가 결국 병의 원인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유전자 변형된 생쥐의 자손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연구원들은 이들 항체의 유전적 계승이 질병감염의 주요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초기단계에서 많은 당뇨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질병과 연관된 합병증이나 증상을 보이지 않으며, 인슐린 생성을 억제시키는 항체들이 피속에 농축되는 현상이 당뇨병 발병의 주요인자

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나지 교수는 설명한다. 이들 항체들은 엄마에게서 신생아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이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세포들의 공격을 야기하면서, 제 1형 당뇨병의 출현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혈당 측정용 포도당 손목시계 등장

피를 뽑지 않고도 피 속의 포도당(글루코스) 수치를 언제나 잴 수 있는 손목시계가 미국 시장에 출시됐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성인 당뇨병 환자의 포도당을 측정하는 글루코시계 측정기는 피부를 통해 12시간여에 걸쳐 20분 간격으로 수치를 읽어내 혈당이 미리 입력시킨 기준치보다 높아지거나 떨어지면 경보음을 울리게 돼 있다.

미국 임상내분비학협회의 로다 코빈씨는 이 시계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않고도 포도당의 수치를 실시간에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는 처음이라고 말하고 '특히 수치를 한밤중에 읽거나 계속 재야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글루코시계 발명자인 러셀 포츠씨는 포도당 수치는 음식물 섭취나 약물복용, 운동 등에 따라 몇 분 사이에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것처럼 12시간만에 한 번 재는 것으로는 피자를 먹고 어떻게 됐는가를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계 가격은 595달러이고 12시간마다 교체해야 하는 감지기는 16개에 69달러75센트다. 미국 식품의약청이 지난해 글루코시계를 승인했지만 제조과정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 세계 2위 '당뇨병 대국'

중국은 인도 다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당뇨병 환자가 많다고 베이징만보(北京晩報)가 최근 보도했다. 현재 인도는 당뇨병 환자가 4,000여만명, 중국은 3,000여만명이며 미국은 1,000여만명으로 3위다. 세계보건기구는 2025년까지 중국의 당뇨병 환자가 5,000여만명으로 늘어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제 1회 국제당뇨병심포지엄에서 뤄민(羅敏) 중화의학회 내분비학회 주임위원은 중국의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고 생활수준의 급속 개선으로 비만인 수가 많아진데다 '중심형 비만인'이 많아 중국인들이 당뇨병에 쉽게 걸린다고 밝혔다. 특히 선진국에는 60세 이상의 인구 중 약 10%가 당뇨병 환자이며 아시아인 특히 중국계들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중심형 비만'이 많으며 체중지수가 24에 달하면 당뇨병에 쉽게 걸린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체중지수가 30이상이라야 당뇨병에 쉽게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 2형 당뇨병은 당뇨병 환자 전체의 90~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뇨병 치료비는 1인당 평균 4천~7천위안(元) 정도다.